

익산시 12m 초대형 트리에 불 밝힌다

2~25일, 근대역사관 일대에 '크리스마스 트리존' 조성... 야간 경관 선보여 2일 오후 6시 트리 점등식 · 크리스마스 마켓 · 기념품 이벤트 등 행사 풍성

익산시가 평평 내리는 눈과 함께 초대형 트리에 불을 밝힌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중앙동 익산근대역사관 일대에서 크리스마스 야간 경관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앙동 구도심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할 전망이다.

우선 2일 오후 6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가 그 포문을 연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어 12m 초대형 트리와 함께 주변에 설치된 모든 트리에 일제히 환한 불이 켜진다. 특히 30분 간 평평 눈이 내리는 특별한 연출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크리스마스 마켓'도 마련됐다. 2일과 6일, 7일 사흘 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근대역사관 야외광장에서 와인과 간식, 향초, 오르골, 크리스마스 장식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익산 대표 관광 캐릭터인 마룡이 상품도 준비돼 있다.

마켓에서 따뜻한 뽕소를 구매하면 크리스마스 컵을 제공하며, 마켓 매대 중 한 곳에서 1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뽕 없는 플랫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주 '크리스마스 마켓 사진 콘테스트'가 진행된다. 멋진 사진을 공유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행사 기간 근대역사관은 오후 9시까지 주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주말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스마트북, LED 등불, △자석 등 크리스마스 용품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주변의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어진다. 주말마다 각종 버스킹과 버블쇼, 캐리커처 그리기, 우드 채색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더해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의 거리에 새로 조성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중앙동 익산근대역사관 일대에서 크리스마스 야간 경관을 선보인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된 '보글하우스'에서는 라면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익산 구도심에서 즐거운 연말을 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존과 마켓을 조성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로 익산역을 경유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

어지며 익산의 구도심이 예전처럼 북적거릴 기대에 부응"고 말했다.

한편 익산 크리스마스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063-853-6783)로 문의하거나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과 인스타그램(@culturecity_iksan)에서 확인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솔리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날 29일 '제16회 익산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익산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페스티벌 성료

법제화 20주년 기념식 등 진행

익산 솔리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날 29일 '제16회 익산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김이남)가 주관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47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학부모,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주년 축하 기념식과 아동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법제화 20주년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아동 복지·돌봄 서비스 주요 제공 기관으로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는 아동들이 합창, 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부모님과 친구들 앞에서 실력을 뽐냈다.

한편, 익산시에는 지역아동센터 47개소가 운영 중이며 약 1,100명의 아동·청소년과 133명의 종사자가 함께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보호, 교육 등 종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가

농막 규정 완화해 불편사항 개선... 연면적 20㎡에 부속시설 미포함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하고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로,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필지당 쉼터 1개 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 면적 33㎡ 이내로 가능하다.

단, 설치 가능한 농지는 △면도(도로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 도로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소방차,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사항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도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조건에 맞으면,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을 허용해 불법 농막들을 사실상 양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농막은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데크, 정화조, 차량장 등의 부속시설은 농막의 연 면적 20㎡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은 1면에 한해 허용한다. 그러나 쉼터와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 농지 이용 현황 및 경작현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정기호 군산시 농정과장은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시민들도 300평 이내에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해당 농지 위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여 주말 영농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행정사무의 문제점 파악 · 대안 제시에 힘써

지난 19~27일까지 진행된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행정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재현 위원장은 "공원 내 조성된 맨발걷기 황토길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시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민 부위원장은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모집 시 새로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유형에서 선발 시 가점을 주는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익산시의 선발기준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서 "2025년에는 사전에 안내되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철저히 확인해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영 의원은 "0년 전 국비로 지원했던 공동주택의 음식물 폐기물 개별 계량장비가 노후화 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교체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익산시가 교체 지원하고 있는 수는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재구 의원은 "주택가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만연해 민원이 많다. 불법 투기를 없앨 수 있는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도심 곳곳에 쓰레기 분리배출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의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중선 의원은 "NS푸드페스타' 축제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장소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며 나아가 익산시의 다른 축제들과 연계하여 축제를 확장하는 방안을 하립과 협의를 통해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조은희 의원은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하며 "차별화된 보건소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우 의원은 "올 12월 모현동에 개소하는 가족문화복합시설 '다우리'에 5개 단체 입주하면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대발적인 주차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동연 의원은 "아이돌봄 신청 가정의 대기시간이 길고, 양성된 아이돌보미 중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수가 적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 시간 단축 방안 및 돌봄 인력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국립군산대산학협력단

인포지아 와업무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인포지아는 최근 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장민석 산학협력단장, 양정무 석좌교수, (주)인포지아 남성현 대표, 이운상 상무, 김원철 이사, 인포지아 파트너사인 소더 코드 오재현 대표, G2G홍현기 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역 내 신성장 사업 발굴 및 참여 △신기술 관련 정보 교류 △우수 인재에 대한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지역주민과 청년,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및 신기술 관련 교육을 통한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국립군산대학교 장민석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이 신기술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력 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상호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신규임용 공무원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군산시(시장 김일준)는 지난 28일 군산 청년들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공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건강한 조직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 강사인 김혜영 강사(現 군산성폭력상담소 소장)를 초빙하여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김일준 시장은 "이번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공무원들이 폭력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성평등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은행,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익산시에 기탁

익산시는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위생용품 꾸러미 150개(4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지난날 29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위생용품 꾸러미는 생리용품 4종과 질점패드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청소년 기관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과 복지사각지대 여성청소년 150명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상익 전북은행 부행장은 "저소득 가정과 복지사각지대 여성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자 '2024 딸에게 보내는 선물' 사업을 준비했다"며 "전북은행은 나눔 경영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익산 부시장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된 물품은 지역의 여성청소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장, 국가예산 최대 확보 위해 '안간힘'

조배숙 국회의원 · 기재부 관계자 직접 만나 현안 설명 2025년도 예산 반영 위한 사업의 당위성 · 시급성 강조



정 시장은 지난날 29일 막바지 총력을 다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 등을 만나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매주 국회의를 방문하며 강행군을 지속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날 29일 막바지 총력을 다하기 위해 조배숙 의원과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를 만나 국가예산 반

영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이날 기재부를 찾은 정 시장은 강운진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난 자리에서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석재산업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등 주요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혜림 연구개발예산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3D 비파괴 안정성 검사 시설 구축 △조직공학기술 기반 재생 의료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과 안재영 문화예산과 사무관을 차례로 만나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 협관 건립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내년도 예산 반영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배숙 국회의원과 면담에서도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주요 신규사업을 다하며 예산 확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중대)는 최근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박중대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선 의원, 김순덕 의원, 김진규 의원, 소길영 의원, 신용 의원, 정영미 의원 등 7명의 의원들과 익산시 PM 운영업체(3사),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중간보고 때

다뤘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비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 시민 요구사항과 선진 지자체 사례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관리방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최종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간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실태와 그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 확보 및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안전

관리방안, △선진 정책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중대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전용 주차존 조성 등을 통해 비이용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